

5

피와 눈물과 씨

서여진 우리들의 역사.

10

и слезами и кровью

Наша история.

15

20

《레닌기치》 /

		중	국	의	정	품	운	동	을	본
	받아		기	이	성	이	는		1	9
			2	2	2	2	2	2	2	5
	나	년	에	북	한	에	자	백	운	동
	을	벌	여	농	고	무	고	한		백
5	성	들	을	고	농	속	에	처	널	은
	다	음		12	일	수	천	명	식	숙
	칭	하	기	시	작	하	였	다		
		바	로	이	당	시	에	자	기	살
	던	조	국	을	버	리	고	소	련	
10	으	로		떠	나	운	우	리	동	포
	프	은		고	행	당	을	떠	나	고
	실	지		아	았	으	려	도	소	련
	에	서	도	누	가	기	다	리	지	
	아	았	지	만		달	리	는	할	수
	는		환	경	에	봉	창	하	여	한
15	수	에		과	는	리	을		농	리
	들	도		어	는		조	국	당	을
	리	켜	보	고		도	도	리	켜	보
	면	서		어	고	강	과		두	만
	진	너	왔	다						
20										

《레닌기치》 2

	그	러	러	이	들	은	왜	이
	러	게	피	수	를	을	물	리
	조	국	당	을	떠	나	야	만
	된	가	?					
5	그	들	은	자	기	부	조	들
	게	서	그	항	당	을	떠	나
	만	강	후	은	안	국	강	을
	너	중	국	당	만	주	국	질
	러	시	아	의	원	동	에	가
	서	바	분	어	그	살	게	된
10	야	기	를	조	조	들	있	다
	그	대	에	그	들	은	1	9
	이	년	에	조	선	이	항	행
	일	러	의	항	국	와	한	안
	견	디	리	부	국	어	도	는
15	제	를	반	대	항	위	배	안
	조	국	을	조	국	항	은	러
	권	위	한	의	행	대	에	가
	여	항	권	을	한	위	로	그
20	애	서	는	떠	는	살	부	가
	~	~	~	~	~	~	~	~

《리얼리티》 3

없 어 서 그 곳 을 떠 나 던 것

이 다

러 시 아 원 동 변 강 에 도

착 한 우 리 부 모 들 은 반 소

5 줄 약 이 나 흥 나 무 께 늘 집

에 서 살 면 서 도 학 교 는

열 고 아이 들 에 게 글 을 배 워 주 기

시 작 하 면 서 도 다 음 까 같 은

노 래 도 배 워 주 운 하 였 다

10 이 천 만 에 동 포 야 이 러 나 기 라

이 러 나 서 흥 을 들 고 칼 을 잡 아 나

항 일 단 네 자 위 와 네 조 국 을

원 복 이 손 에 서 다시 찾 도 록

도 는 우 리 들 은 그 들 의

15 힘 거 문 일 허 에 서 도 정 오 략

환 휴 식 시 간 을 이 용 하 여

눈 물 을 흥 리 변 서 부 르 던

다 음 라 같 은 노 래 도 들

있 다. 남 쪽 나 라 떠 나 던 곳

20 에 올 부 러 살 고 고 향

《레닌기치》 4

파 눈으로 이 별하곤

떠나야 할 되었던가.

어린 아기 등에 업고

병든 어미 이 끝에서

남북여대 행하는 끝

그 어대 어대였던가?

5

그 때에 우리 부모들은

외태 최양자 일레의 발

축 아래 서는 살 길이 어

서서 그렇게 하였지만,

10

그런데 우리들은 그 네들

의 제 오세대로서 왜

또 다시 그 네들의 최참한

길을 반복하였던가?

그것은 자기 조국의

15

최고 책임자 소위 인민

의 "어배이로" 가 칭한 길

일성의 지시에 따라 "종

파 분자", "어색 분자", "반당 분

자", "반혁명 분자" 숙청 순

20

동이 게달별로 : 최음에

《레닌기치》 5

	남	한	에	서	들	어	온	간	부
	다	음	중	국	노	련	말	이	약
	은	로	지	방	간	부	은	을	속
	한	다	음	과	기	별	처	산	간
5	도	결	반	어	상	속	청	하	였
	이	런	게	간	부	들	은	을	속
	하	는	노	무	사	상	검	호	당
	회	의	에	서	는	어	는	결	한
	조	작	하	여	적	책	에	서	해
10	철	적	식	의	후	2	-	3	일
	지	나	면	적	장	에	서	출	판
	고	산	년	집	에	서	,	비	내
	이	름	이	나	는	내	리	는	계
	이	나	별	로	하	고	모	든	가
15	경	은	분	은	남	적	분	책	추
	하	준	하	였	다	.	이	과	정
	만	은	세	대	주	들	은	별	처
	이	리	검	거	후	무	되	었	다
		이	런	게	"	연	각	하	고
									선
20	기	12	일	상	막	당	들	은	화
									물
									차

《레닌기치》6

시어

	애	축	방	당	하	는	가	죽	들	을
	평	양	시	외	에	내	여	보	내	면
	너	말	하	기	를	-	지	방	에	나
	러	가	일	년	것	로	동	고	알	을
5	반	은	연	당	은	다	시	당	신	
	들	을	간	부	로	등	용	할	것	임
	나	다	-	하	였	다	그	러	나	철
	직	당	하	는	사	람	들	은	그	면
	러	들	로	난	사	람	들	의	행	
10	방	을	일	고	었	었	던	것	이	다
	그	것	은	아	주	고	흥	이	불	
	편	한	중	비	향	높	에	있	는	
	형	동	조	항	어	나	백	투	산	별
	죽	광	어	나	그	럼	리	어	나	면
15	한	광	이	나	철	광	산	에	내	면
	보	낸	"	반	당	,	반	인	민	중
	자	"	들	은	"	선	환	"	로	동
	주	선	하	어	쉽	게	을	포	동	에
	대	말	아	죽	고	,	히	공	과	야
20	에	억	을	하	게	눈	을	감	았	다

《레닌기치》 7

	는	것	을	,	레	하	면	북	한	민	주
	공	화	국	에	서	전	인	민	적	사	
	량	과	준	경	을	받	으	시	던		
	기	두	보	상	이	위	원	회	위	원	
5	장	년	라	방	의	완	벽	수	상	12	
	은	중	앙	경	부	에	서	어	반	을	
	며	은	년	서	이	하	였	다	는	“	적
	조	“	형	동	조	항	에	경	배	보	낸
	다	은	레	일	은	적	의	계	에		
10	도	두	어	는	지	고	다	나	다	가	
	길	바	다	에	서	로	동	당	열	성	
	자	를	의	야	질	을	당	하	다	가	
	별	세	하	였	다	그	런	가	하	면	,
	이	를	의	가	정	도	종	적	어		
15	어	이		이	는	어	지	고	말	았	다
	그	“	“	의	만	아	나	다	,	기	“
	안	철	,	김	일	,	리	중	인	,	전
	기	철	우	,	장	우	환	,	장	우	우
	동	리	들	은	분	인	들	과	함	계	
20	가	중	들	도	행	행	분	명	이	되	

《레닌기치》 9

	세	대	주	구	인	상	고	가	족	안
	돌	아	온	것	을	합	하	여	1	총
	2	호	여	,	현	재	생	존	하	고
	있	는	세	대	주	는	1	2	명	이다
5	우	크	배	크	한	에	서	좌	견	된
	간	부	들	중	에	서	6.25			동
	족	상	쟁	시	권	사	할	분	들	은
	4	명	인	바	안	동	부	,	박	훈
	박	리	오	나	드	강	남	익	이	려
10	김	일	성	경	최	에	한	압	-	강
	금	당	하	여	돌	아	오	리		못
	사	람	은	김	철	성	,	김	동	철
	김	원	길	,	박	사	현	,	박	태
	박	일	타	리	문	,	권	혁	준	,
15	최	원	,	정	일	,	김	해	경	십
	12	이	12	,	기	하	는	유	형	지
	에	가	서	야	자	기	들	이		놓
	은	것	을		알	게	되	12	년	서
	뒤	고		알	았	다				
20										

2

《레닌기치》 10

	그	러	면	현	재	평	양	시	에
	서	살	근	어	은	이	어	막	
	시	간	가	러	숙	형	당	하	지
	한	노	련	출	신	간	부	는	이
5	이	나		되	는	가	?	그	것
	기	보	을	, 기	보	인	^{바라} 는	이	는
	어	다	, 그	러	면	나	한	이	나
	주	국	에	서	은	간	부	들	은
	그	것	은	역	시	막	히	한	가
10	지	면	다	그	렇	다	기	일	성
	기	전	일	과	한	개	어	전	, 자
	들	의	역	사	를	아	는	간	부
	들	은	물	때	개	결	이	총	산
	하	고	군	주	국	세	습	독	재
	를	각	리	려	하	였	던	것	이
15	그	러	나	이	것	은	금	일	
	현	실	에	어	어	서	안	될	것
	이	전	에	북	한	에	서	기	일
	과	간	어	나	라	를	꾸	리	다
20	가	한	당	하	고	추	방	되	어

《레닌기치》 11

	이	그	에	은	사	라	도	중	5	명
	은	5	년	전	에	다	시	기	이	성
	에	게	전	항	하	여	러	리	를	
	수	기	몇	지	만	그	들	도	다	
5	우	리	와	한	가	지	로	나	아	어
	다	가	시	간	이	흐	름	에	따	라
	는	한	명	은	로	써	시	간	의	고
	인	제	는	한	명	이	나	아	있	다.
	흐	름	에	따	라	죽	어	가	고	있
	는	것	은	사	실	이	다.	그	러	나
	우	리	들	에	게	는	우	리	가	조
10	선	에	서	무	로	때	에	대	리	고
	우	리	의	2	세	대	와	또	여	기
	와	서	과	타	고	있	는	3	세	
	대	가	성	광	하	고	있	다		
	그	들	에	게	물	어	보	라	!	
15	그	들	이	북	한	의	군	주	세	습
	제	도	를	지	지	하	는	가	?	
	물	론	《	아	니	》	라	고	대	답
	것	이	다							
	나	는	어	에	대	하	여	터		
20	결	게	실	명	하	려	하	지	않	는

29

《레인 기차》 12

	상	기	운	차	아	고	송	연	운
	등	지	계	된	우	리	전	체	동
	포	플	운	차	추	전	송	할	인
	원까지 놓았어야도 이 인제는 다 세상 떠나고 단 2명								
	명까지 리 는 하 야 , 그 리 나 라이 남아 있다								
5	부	비	어	지	적	하	여	야	할
	세	대	주	르	기	일	성	아	당
	영	향	에	떨	겨	두	고	도	, 그
	도	어	린	아	이	들	의	목	속
	이	나	살	리	려	고	떠	나	온
10	그	부	인	들	의	걸	음	은	침
	한	숨	에	눈	물	피	인	걸	음
	였다	.	이	들	은	극	경	선	아
	공	강	출	교	를	전	너	를	때
	차	창	으	로	경	문	고	향	당
15	제	속	도	리	기	보	편	서	자
	마	음	속	에	길	이	간	적	하
	었	는	세	상	에	서	가	장	준
	제	향	그	사	란	의	그	리	자
	보려했듯이								
	라	도	애	를	써	가	편	서	르
20	거	운	눈	물	을	쏟	았	다	.

《레닌기치》 13

	사	리	지	어	근	인	자	한
	친	척	어	기	다	리	지	아
	어	들	의	생	활	은	노	련
	도	라	와	서	도	밖	라	다
5	풍	능	물	로	비	개	어	을
	시	군	하	였다				
	그	러	나	세	월	은	홍	터
	경	은	그	항	과	그	림	은
	이	들	을	주	근	은	지	발
10	년	주	지	나	서	원	제	는
	서	40	년	이	가	까	아	오
	어	다	만	가	지	고	생	과
	간	을	이	주	지	못	한	만
	지	난	오	늘	에	는	그	이
15	아	이	들	이	성	광	화	여
	에	진	출	한	은	로	써	그
	물	리	적	은	재	어	는	은
	저	어	은	나	자	나	개	나
	아	에	서	러	나	지	않	은
20	거	리	,	그	항	적	,	아

《레닌기차》 14

	다	도	더	한	것	은	그	의	들	의
	가	슴	속	에	기	어	사	부	처	었
	는	그	남	편	의	시	경	,	사	
	랑	스	러	운	복	소	리	,	따	뜻
5	던	그	손	길	과	각	해	은		
	언	제	든	지	그	어	어	너	들	과
	동	행	할	것	이	다				
	일	례	로	,	김	일	성	의	정	부
	호	위	처	광	으	로	지	내	시	던
10	김	덕	환	씨	의	부	인	밖	에	가
	저	리	나	는	당	년	85	세	로	써
	나	편	이	체	포	되	어	간	지	37
	년	이	지	나	스	나	이	기	간	에
	12	일	을	하	루	강	어	,	12	기
15	밖	상	에	는	그	남	편	의	속	
	저	를	가	차	려	놓	고	저	심	을
	12	일	저	년	차	리	를	결	때	에
	그	의	의	차	리	도	같	이	후	로
	으	러	도	아	침	이	면	검	구	군
20	환	나								

《레닌기치》 15

	그	러	변	예	까	재	리	나	할
	러	나	는	어	는	때	까	지	나
	리	순	나	편	에	대	한	다	변
	어	는	공	대	공	계	속	할	것
	어	는	가	가					인가?
5	아	라	도	▽	생	존	하	시	는
	북	한	정	북	로	부	혀	공	식
	적	부	고	를	받	는	날	까	지
	라	고	짐	작	할	수	어	라	
	나	는	벌	써	10	년	전	부터	
10	나	의	권	유	들	도	그	들의	의
	가	족	들	에	대	하	여	자	들
	권	유	기	시	작	하	였	은	이
	여	건	은	"	레	닌	기	치	"
	및	"	구	국	전	선	지	에	
	하	였	다	1	9	94	년	말	에
15	이	우	르	베	크	스	한	주	재
	한	국	대	사	로	와	게	시	될
	서	건	이	대	사	는	우	리	의
	유	가	족	후	원	회	대	표	를
	적	대	석	상	에	서	-	여	러
20									분
									들
									의

《레닌기치》 16

눈물로 영겨진 그 삼의
 역사는 우리의 후대들로
 있어 보게 하기 위하여 단
 신네 각자들의 희생기를
 5 종합하여 책으로 출판하
 여야 한다 하신 것이다.
 그렇치 않고 계시다가 강
 신들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그 역사는
 10 누구든지 알 수 없게 될 것
 이다 -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대중들에게 새롭고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주
 었다.
 15 이 책에 쓰여진 각
 재들은 본 김일성 동지
 의 감옥에서 옥사하신 분
 들, 북한에 각 농장들
 적광에서 노동당 열성
 20 자들의 손에 그려진 단

《레닌기치》 17

	다	가	기	진	백	진	하	여	길
	가	나	북	도	에	서	눈	을	감
	신	어	를	, 또	노	련	평	강	
	지	방	을	에	후	방	강	하	여
5	오	신	후	대	일	간	이	눈	을
	한	눈	을	를	남	의	평	의	흥
	과	떨	러	우	고	부	신	그	로
	에		대	한	소	식	을	기	다
	다	가	백	진	하	신	그	이	를
10	피	눈	을	라	한	눈	의	응	결
	서	북	한	군	주	동	재	세	를
	도	에	항	거	하	는	어	것	한
	증	언	들	이	다				
		또	하	는	수	어	어	자	기
15	국	적	을	거	절	하	고	일	한
	민	주	량	병	가	로	써	소	련
	각	지	역	에	들	어	다	다	가
	우	즈	백	한	하	슈	켄	트	시
	백	진	하	신	전	북	한	트	령
20	정	권	대	사	리	상	조	신	생
								이	

북한로동당전원회의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에게

보낸 편지와;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5 위원장 김일성에게 ^{보낸} 편지

들은 (1956년 10월 11일 북)

이 책 내용의 철두철미

한 증거이며 북반의 가

공산체제에 대한 끊임

10 연로파 ~~파~~ 인정한다

우가주 후원회장 강영봉

15

20

책의 맺음말.

사람의 일생이란 생활 환경에 의하여 환경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단순치 아니한 길이라는 것을
이제 와서야 알게 되었다.

유년 학생 시절이나, 처음 인간 생활의 환경에
접촉할 때 나에게 생의 길이 없겠는지 어긋는지 생각해
이 거리 만인의 움직임은 그 대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허덕일 뿐이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접촉하여 살아온 나의 길에
는 다 뜻한 인간적인 즐거움은 느낄 때로 없었고
또 예상 할 수 없었고 후회 할 수 없었던 슬픔과
아픔은 체험할 때로 있었다.

사람이란 가정적 동물인 것 만 큼 태 생명이다 그
환경에 대처하는 방책을 꾸려야 살아야 하였다.

만약에 그에 대응되는 적당한 대책은, 결심 후
하지 못하고, 그저 소홀히, 경솔히 발걸음을 내
놓아가는 그 어후 오래동안 후회를 내버려 두게
게 되었는 것을 이제 내 삶이 끝나게 되는 오
늘에야 결혼 짐을 졌다.

이러한 사람에게든 생의 길로 걸어가는 동안 반
듯이 귀인들이 있는 법이다. 수천 만 평인들이 움직
이고 있는 인생의 대에서 이 귀인들을 잘 알아
보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면, 그들의 말뜻을 명심

하여 잘 드코 열심히 하여 실원에 옮겨야 한다.
이 귀인들 외에 다른 말인들은 전부다 동등으로 존경하는
동등하다. 그러나 그 동등함에도 몇몇의 친구가 있는바 그
들은 친척보다도 더 가까운 한층더의 구성체들이다.

나의 생애서 귀인이라곤 언정 ~~한~~ 사람들은: 박영빈
선생, 최종학 선생, ^{김재욱} 나일, 김봉을, 최현, 최광, 리호원 등
선생들이다. 이 선생님들의 말뜻은 참 수정같이 끼끗한
진실적 말뜻이었다.

나의 책에는 선생, 동지들에 대한 80명의 격려, 회
상, 격려를 이루어 수록되었는바, 그 재물들은 전부다 그
들의 복언, 자식들, 멀근-가까운 친척들이 각이한 조건에
서 각이한 방법으로 나에게 전달한 것이니, 그중에서
몇개만은 자신의 손으로 수록하여 두었던 것은 나에게
정중히 전달하여 준 것이다.

예컨대: ^{리향조} 남봉식 선생, 유성철 선생, 박병을 선생 강
상호 선생들과 허익 선생 부인 윤열련나, 안우경
선생 부인 송종산 사모님들이 그리하였었다. 나는 어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은 ^{나에게는} ^{어려서부터}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하였은
다. 나의 재간없는 집필에 대한 욕심을 자라기
시작하였었다.

그러나 이상의 모든 조건들은 나의 책의 초대는
되었으나, 이 책이 앞으로 햇빛을 볼 수 있는 희
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여러가지 근심
걱정중에 생각하기를: ^{최재로} 어 나의 원근가

책을 출판할수 없는 원고로 리라면 그것을 잘 정리
하여 전자 한글말 원고로 만들어야 할것이며, 그 다음
씨는 돈이 있어야 이 원고가 한 달은 볼수 있을것이었다.
내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사람들이든 반듯이 귀인이 있는
별이다. 이별에 어울리게 대하여 귀인으로 나를 맞이하여
준 사람은 바로 리연길 선생님이다.

리연길 선생은 바로 "북한 민족화 촉진 협의회" 의원
장이다. 리선생은 벌써 8.25 사변 전에 함남 원산시
에 거주하면서, 북한의 정치체도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
학생 운동에 참가하시다가 원산시 내무서에 불을 질러
자기 동향 몇몇 친구들과 함께 38선을 월경하여
남한에 이거하였던 것이다.

현재 리연길 선생은 북한 민족화의 길을 갈리면서
전체 한인 민족연사들을 결속하는 사업을 강화하는 한
편 "조국 평화 통일 구국전선" 상임의장 박갑동 선생
과 보조를 맞추면서 사업하는데, 1999년에는 두 분이
동참하여 "북한 민족화 촉진 서울 대회"를 성공적으로
화산포대회와 동경대회
지속적으로 진행 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내가 쓴바와 같이 책을 직접 본 나의 글행보다
리연길 선생의 로력이 어찌어 진짜 책이 되는 과정
에서 더 컸다는 것은 강조하면서 어찌어 어떠한 호물이
있다면 그 권부를 리선생에게 드리는 바이다.

앞으로 어 책을 읽어볼때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북한화는 마는}이해한
해관적 의정이나 의문이 생기면 전화로 또 편지로 저에게 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강행불 →
것이다.

4의 주소: 700115,
Uzbekstan, Tashkent, 115
Chilansar: I-29-34.

tele fon: 998712-53-59-72,

강함봉. Tian Kark-pong

(Satron Ivanovichtian)